

# 제11장 <관계적 지리학> 발제문

인문지리학 전공 박사과정  
20242951 강석영

## 서론

포스트구조주의 지리학에 대해 사유하는 한 가지 방식은 바로 그것을 관계적 지리학으로 사유하는 것이다. 이 세계의 공간을 본질을 지닌 일련의 분절된 사물들의 조합으로 생각하기 보다는, 사물들이 서로 관련을 맺는 형태로 이 세계가 구성되어 있다고 생각할 수 있다. 이런 접근 중 잘 알려진 사례가 지형학과 위상학 간의 차이를 고려하는 접근이다.

지형학이 땅의 분절된 형태를 지칭하면서 때로는 분리된 장소를 지시할 때 사용한다면, 위상학<sup>1)</sup>은 사물 간의 연계성을 의미한다. 지형도는 등산을 할 때 유용하고 위상도는 지하철노선도처럼 순서로 연결되는 모습을 확인시켜준다. 특히 이런 위상도와 같은 지도에서는 스케일이나 절대적 위치는 더 이상 중요하지 않다. 관계적 지리학은 위상학적이다.

조나단 머독은 포스트구조주의 지리학의 핵심은 바로 이 관계성과 관련된 주제라고 했다. 여기의 핵심적인 주장은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 공간이나 장소가 아니라 그 현상들이 관련되는 방식이라고 하는 것이다. 사물과 공간의 관계성에 집중하여 관계적 공간을 생산하는지에 초점을 맞춘다. 그러면서 관계성에 집중된 관계성의 정치를 제시한다.

도린 매시는 관계적 공간 개념에 대해 상호관계의 산물이고 복수성의 영역이며 항상 과정 중에 있는 또는 생동(becoming)임을 천명한다고 주장했다. 매시는 공간이 상호연관성으로부터 생성되며 생성되는 과정으로 만들어 질 것임을 주장하였다. 이는 공간은 복수성의 영역이며 끊임없이 능동적이기 때문에 분절적인 단위 등으로 특정되거나 특징지어지지 않는다.

관계적 지리학과 관련된 연구자들은 공간이 장소감이 결정되어 있거나 단단하게 고정되어 있거나 질서 정연하다는 생각에 반대한다. 왜냐하면 그들에 있어 공간은 활성화 되어 있기 때문이다.

공간에 대한 관계적 인식은 지리학자를 비롯한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공간에 또 하나의 층을 추가하는 것이다. 개념으로서의 '공간'은 공간과학에서 부각되어 그 이후로 다양한 이론에서 중심적으로 다루어졌다. 이러한 이론과 개념에서의 공간은 선형적인 존재라기 보다는 사물들 간의 거리이다. 따라서 그 사물들 없이는 공간도 없는 것이라고 말한다.

이에 반해 관계적 공간은 그 사물들과 공간 간의 차이를 허물고 공간은 저절로 그 자체적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며, 물질적 대상과 시공간적 관계 및 그 확장 위에 또는 그것들을 감싸며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고 언급한다. 관계적 공간은 공간상에서 일어나도록 되어 있는 사물들과 동시에 발현된다. 그것은 사물들 간의 관계를 통해 끊임없이 형성된다. 절대적 공간과 상대적 공간은 성격 상 지형학적인 특징을 띤다.

## 장소에 대한 관계적 개념

우리는 장소가 이 세계의 독특한 일부이자 인간과 세계에 밀착된 형태라고 생각해 왔다. 장

---

1) 어떤 사물이 다른 사물과의 관계 속에서 가지는 위치나 상태

소에 대한 두 가지 개념 모두 장소가 그것을 둘러싼 주변과는 다른 것이며 역사적으로 깊이 뿌리내린 것이라는 장소감을 표방하고 있다. 그것은 착근<sup>2)</sup>성과 경계 그어짐으로 점철된 장소다.

시블리는 타자화와 배제를 매우 심각하게 다룬 주요 지리학자 중 한 명이다. 그에 따르면 장소는 내부인이 외부인을 '우리'와 '그들'로 구분하는 과정의 일부가 된다. 장소는 단순히 그곳에 속한 사람들이 긍정적으로 부여한 의미가 아니라 늘 장소를 구성하고 있는 외부와의 관계를 통해 구성된다. 장소 바깥과 장소 안은 동일하게 중요한 것이며 내부가 외부를 그 안에 포함하고 있는 것을 의미한다.

매시는 이에 대해 고정적인 장소가 아니라 장소는 관계적이라는 제안을 통해 해소하고자 했다. 장소는 '그 내부'만큼이나 '그 외부'에 의해서도 구성된다는 것이다. 이러한 관계적 전환은 정체성과 큰 연관이 있다고 주장하였다. 정체성이 더 이상 외부와는 분절되면서 내적으로 동일한 것이 아니라면, '정체성'을 특정 장소 위에 말 그대로 지도화하는 것은 불가능하게 된다. 이는 장소가 이질성을 특징으로 한다는 것을 생생하게 환기한다. 세계와의 연관성을 통해 구성되는 장소는 바로 이런 장소이다. 이런 장소성은 우리로 하여금 고립된 정체성보다는 상호 의존성이라는 측면에서 장소를 사유하도록 만든다. 이것이 바로 장소에 대한 관계적 개념이다.

## 스케일의 종말?

관계적 사고는 최근 스케일에 대한 사고의 핵심이기도 하다. 일반적으로 '글로벌' 단위의 사건을 언급할 때 그 스케일은 굉장히 큰 것이며 중요하고 더 큰 영향력을 가져온다고 말한다. 이와 대비되어 로컬 스케일이거나 지역화, 소규모의 것들은 덜 중요하다고 얘기한다. 이러한 경우 공간적 범위와 중요성 간에는 일종의 위계적인 관련성이 성립된다. 글로벌한 일은 당연히 전 세계적이라고 간주되는 반면 로컬한 일은 특수하다고 여긴다.

글로벌한 모든 사건은 어떤 지역에서 일어나야 함에도 불구하고 글로벌한 스케일은 다른 스케일에 비해 항상 더 중요하고 더 많은 일을 하는 것처럼 간주된다. 이는 지역적으로 수많은 일이 일어나지 않고서는 절대로 세계적인 일은 일어나지 않는다는 점이 고려되지 않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여러 학자들은 스케일을 당연한 것으로 치부하는 것을 중단하고 사회적 구성물로 사고할 것을 제안하는 일련의 연구들을 탐색했다. 피터 테일러의 경우 스케일의 정치를 세 가지 측면으로 정의하고자 했는데 첫 번째 경험의 스케일로서 로컬이나 도시, 두 번째 이데올로기의 스케일로서 국가, 세 번째 실재의 스케일로서 글로벌을 제안했다.

그가 글로벌 스케일을 실재의 스케일로 규정하는 핵심 이유는 미시적 스케일의 사건을 전체적으로 조망할 수 있는 지점이 바로 글로벌 정치 경제이기 때문이다. 글로벌이 로컬 위에 존재하는 공간임을 상기시킨다. 글로벌 스케일은 최적의 설명을 도출해낼 수 있는 스케일이 된다는 것이며 규모(수평적)를 수준(수직)과 뒤섞음으로써 세계를 파악하는 프레임이 도출되었다. 또 다른 쪽에서는 스케일을 위계적으로 보면서 지점들을 연결하여 네트워크와 결합하는 방식도 존재한다. 이는 마치 무수한 연계망이 교차하는 평원이 연속적으로 이어진 것과 같은 상상이다.

마스틴 등의 학자들은 이러한 주장도 거부하며 스케일 논의에 대한 자체를 중단하고 편평한 존재론을 제안한다. 스케일에 대한 사고의 유익한 점 중 하나는 각자 또는 개별자들이 스케일에 대한 생각을 가지게 되었다는 점이다. 로컬과 글로벌, 미시와 거시라는 용어를 사용할 때 어떠한 생각을 가지게 된다. 이에 대해 스케일의 고정된 것들을 제거하기 위해 마스틴은 스케일이나 위계 보다는 흐름과 운동에 초점을 둔 존재론과 인식론을 수용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

2) 다른 곳으로 옮겨가서 자리를 잡고 사는 것, 어떠한 것이 기반을 잡은 상태를 말함.

그는 이런 접근은 고정성과 범주화라는 낡은 인식을 절대적 탈영역화와 개방성이라는 인식으로 대체하며 물질적 세계는 운동과 이동성이라는 개념으로 수렴된다고 말한다. 이 세계는 무한한 일련의 지점들의 연속으로 사건이나 사물의 결과물이다.

편평한 인식론이라는 아이디어는 영역과 지역에 대하여 비판적인 인식을 발전시켜 온 정치 지리학자들에게 특별히 문제시되었다. 마틴 존스는 공간과 스케일에 대한 관계적 사유에 완전히 반대하지 않고 영역과 지역의 특별한 중요성을 주장하고자 했다. 관계적 접근은 영역과 지역을 허수아비처럼 만들어서 대체할 필요가 있는 정적인 개념으로 설정한다. 영역이란 정치, 경제, 문화적 실천을 통해 항상 만들어지는 과정 중이고 재형성된다. 네트워크 역시 항상 유동적이고 역동적인 것만은 아니다. 네트워크 역시 나름대로 고정적 요소나 결절지, 궤도, 계류 지점을 가지고 있다. 존스의 주장의 핵심은 관계적 공간과 영역이나 지역의 형태 간의 상호관계를 사유할 때 시간성을 고려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그러한 지점에서 '위상 공간'은 공간적 가능성들의 특정한 조합이 미래의 어떤 시점에서 새로운 배열을 유도하는 방식에 대해 설명한다. 위상 공간은 현존하는 공간적 배열이 무궁무진하게 다양한 미래의 가능성, 곧 다음번에 일어날 일들의 각종 다양한 버전을 그 안에 내포하고 있다고 설명한다.

## 비재현적이론

관계적 사유 중 가장 뜨거운 이슈는 비재현이론(non-represent-ational theory)일 것이다. 관계적 지리는 일반적으로 구조적 힘과 실천을 통해 세계를 반듯하게 잘라진 조각들로 나누는 관점과는 가능한 최대한의 거릴 두고자 해왔다. 연결과 흐름, 네트워크에 대한 지리적 상상이 관계적 지리를 구성해 왔다. 비재현이론은 세계에 대한 태도이자 스타일이다. 비재현이론에서 이론의 성립 등 보다 우선적으로 고려 해야 하는 것은 세계를 살아있는 것으로, 생동하고 있는 상태로 사유하고자 하는 욕망일 것이다.

이 세계는 일반적으로 완성된 것, 이미 완료된 것으로 간주하는 경향이 있는데 이러한 환경에서는 창조적인 움직임을 위한 공간은 거의 없게 된다. 이 세계를 죽은 것으로 만드는 것 중 하나가 바로 재현이다.

비재현이론은 관계성을 추구하고 구조주의적 결정론에 대한 지지를 거부한다는 점에서 포스트구조주의적이다. 그러나 차이가 있다면 텍스트와 담론 모두 그 용어의 일상적 의미 이상을 내포하고 있다. 글쓰기와 말하기라는 발전된 사유에서 언어라는 측면에서 이 세계를 사유하는 특별하고도 상당히 지적인 방식이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한다. 이 세계에선 본질이란 없으며 사회적으로 구성될 뿐이라는 점이 이러한 방식과 맥락을 같이한다. 텍스트나 담론과 같은 아이디어를 통해 사물의 가치를 매기고 사유하는 것은 일종의 엘리트주의적 지적 자만심이라고 평가한다.

비재현이론은 세계가 텍스트로 구성되어 있다는 아이디어에 저항하며 대신 세계가 작동하는 방식에 있어서 창조적 순간과 뜻밖의 일을 고찰한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무엇을 하느냐에 초점을 맞춘다. 텍스트가 이 세계를 기표화하고 구조화한다는 입장에 반대한다.

비재현이론은 기호, 텍스트, 재현 대신 다른 이론적 구성물을 선택하였는데 이 구성물 중 핵심 개념은 사건(event)이다. 사건이란 잠재성을 생산하는 순간적인 맥락과 궁지이다. 사건은 단순한 사실 그자체만으로 끝나지 않는다. 이런 이유로 사건에 주목함으로써 이미 완료되었다는 생각을 재고하고 끊임없이 생동하는 상태로 다시금 우리의 이목을 집중시키고자 한다.

비재현이론의 또다른 핵심 개념은 정동이다. 이는 감정과 혼동되곤 하는데 감정이 온전히 개인적인 차원의 개념으로 인식하거나 사회적 구성물이라는 관점을 탈피했다라는 시각이라면 정동은 사물 간의 관계의 산물로 본다.

정동은 감정 이전에 느껴진다는 점에서 감정과 차별화된다. 감정은 개별적인 육체가 사회문

확적으로 결정된 의미를 정동에 부여함으로써 정동을 이해하는 방식이라고 볼 수 있다. 정동은 관계적이면서 동시에 전(前)재현적이다.

<재현성과 비재현성의 차이>

재현성	비재현성
완료/고정	유동성/과정/현실적
정립된 시스템 및 구조	의미의 생산이 진행 중
본질주의	관계적인 인식론
의식적인 작용	상호작용
결정론	예외성
인간 중심적	포괄적인 생명 전체

비재현이론이 경험적 영역에서 활용되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이다. 첫 번째는 창조적인 잠재성에 초점을 두며 둘째는 정동 공학의 어두운 측면에 초점을 둔다. 춤은 일종의 놀이이며 이 놀이에는 생산적인 부분이 있다. 춤출 때 몸의 움직임의 정치는 미리 알 수 없으며 미리 결정되지 않는다. 춤추는 맥락을 통해서 설명될 수 있는 것을 초과하는 그 무엇이 항상 있으며, 예상 밖이거나 창조적 순간의 정도는 바로 이런 초과하는 부분에 달려 있다.

비재현이론에서 춤은 공간과 행위에 표현과 창조적 힘을 부여하는 방식 중 하나다. 춤은 구조적 결정으로부터 자유로운 인생의 순간을 지칭할 때 사용되며, 환희와 예상 밖의 일들이 넘쳐나는 가능성으로 가득 차 있다.

또한, 내쉬는 춤이 벌어지는 재현적 맥락의 중요성에 대해 지속적으로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고 주장함과 동시에, 비재현이론 그 자체도 재현 너머 체현된 공간, 그곳에서는 어떤 종류의 자유를 위치시키는 그런 곳이 어디인지를 추구해 온 재현적 역사의 일부임을 환기시킨다. 재현적 역사는 체현된 것과 재현된 것의 분리라는 쉽사리 유지하기 어려운 아이디어에 기초하고 있다. 결과적으로 비재현이론은 재현 너머의 세계를 인식할 때가 되었음을 강조하고 있다.

비재현이론은 어두운 감정을 설명하기 위한 이론과 결합되는 경우도 많다. 동물 학살, 홀로코스트, 고문에 관한 연구거나 특히 정동의 특징에 대한 관심을 훈육과 생체권력과 같은 푸코적 개념과 접목하여 21세기 공황과 그 이외의 지역의 보안과 보안 절차에도 어떻게 반영되는지를 설명했다. 보안은 예상되는 행위에 대한 감시로 점점 옮겨가고 있다. 곧 정동의 영역에서 기원한 미세한 몸짓이 주는 단서를 통해 무엇이 일어날 것인지를 예측하고자 하는 것이다.

**결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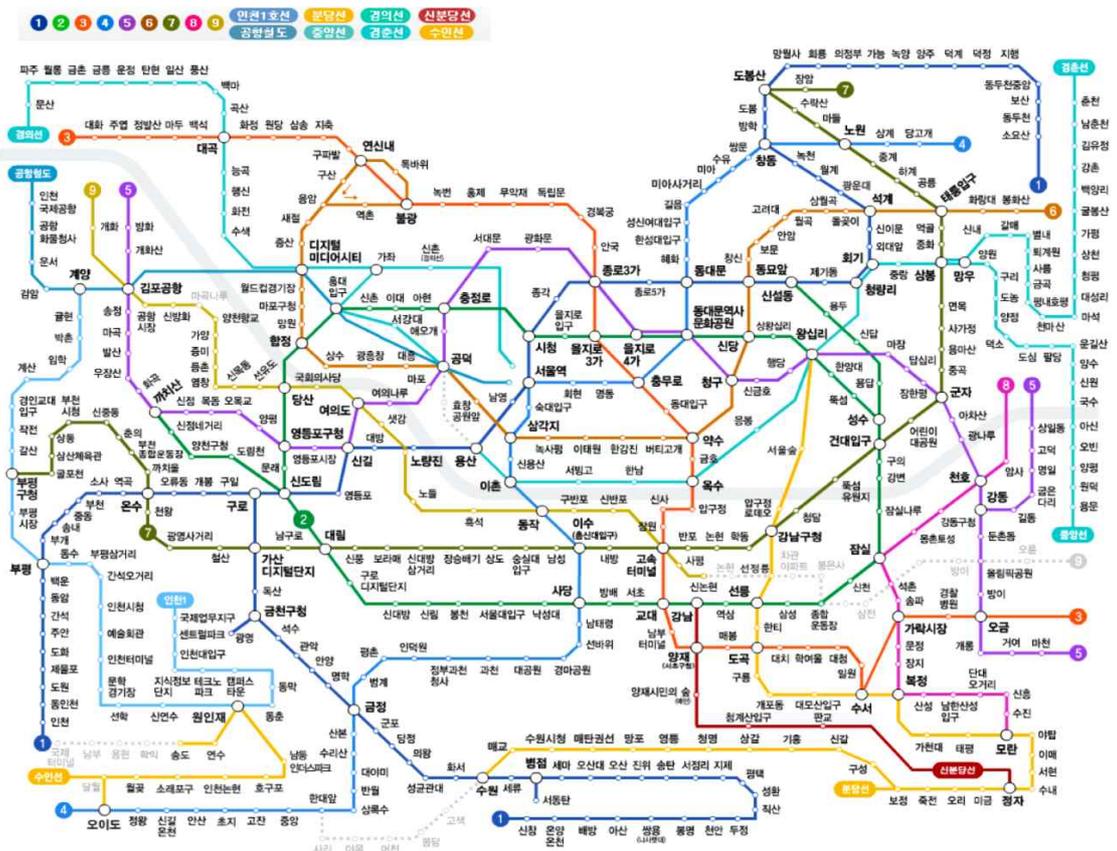
관계적 지리학은 ‘관계성’을 중심으로 살펴보는 이론이다. 관계적이기 위해서는 본질적인 자아 보다는 연관을 형성하는 산물이 있어야 한다. 관계적 사유는 반본질주의적 사상이다. 관계가 변함에 따라 연관된 사물도 변한다. 관계적 지리학의 중요한 요소인 공간, 장소, 스케일 등을 살펴보았고 비재현이론이라는 개념을 통해 ‘사건’과 ‘정동’의 요소를 살펴보았다. 관계적 지리학은 공간과 장소의 생산과 실천에 대하여 사고의 방식을 변화시켰고 특히 위상학적 지리학을 창조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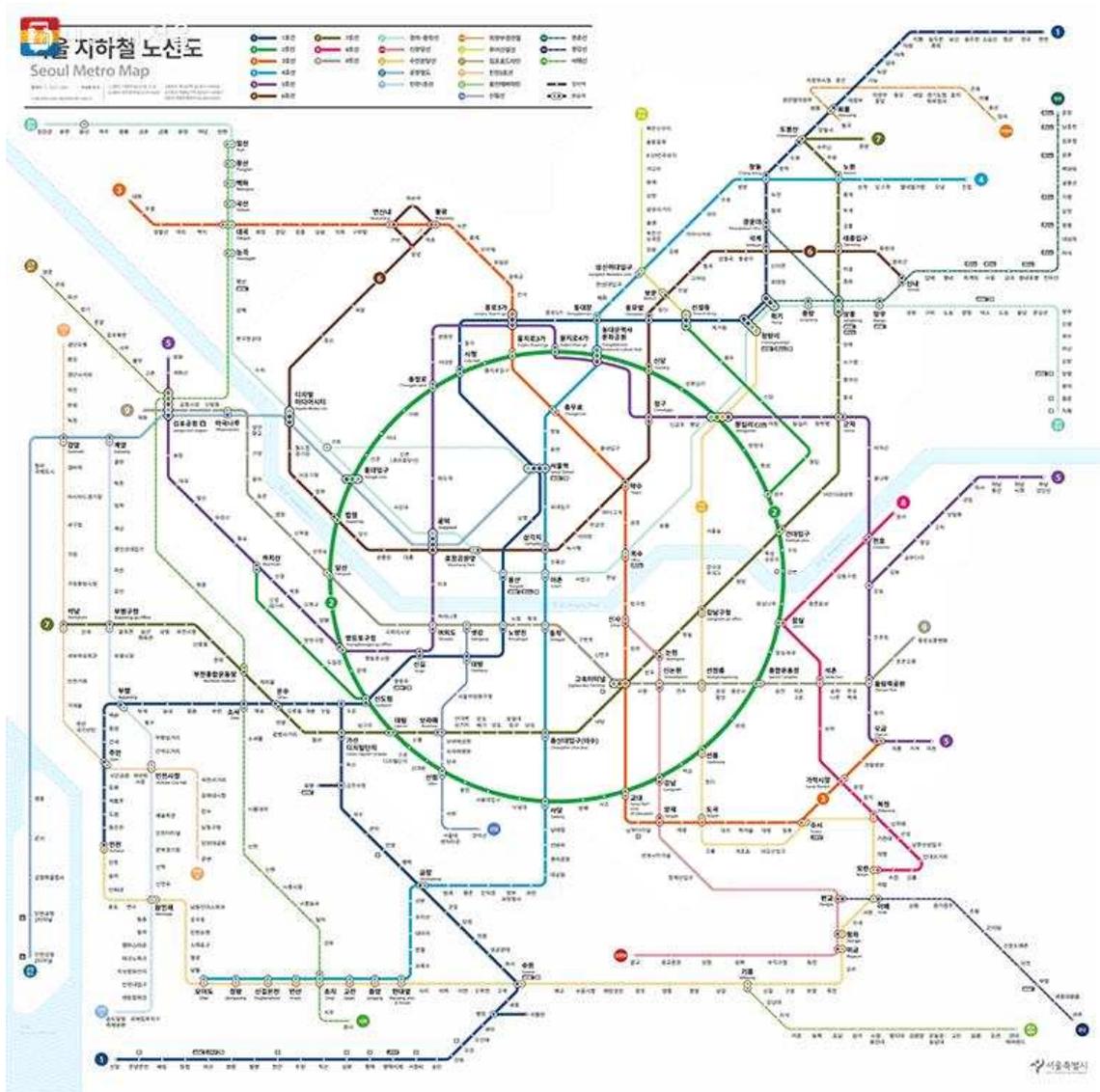
## 서울 지하철 노선도의 관계성 '읽기'

2025년 4월 서울시는 지하철 이용객의 편의를 높이기 위해 40년 만에 '단일노선도'를 전면 수정 및 개편하고 교체를 실시하였다. 이 개편은 '약자동행 디자인' 원칙을 반영해 누구나 보기 쉽고, 찾기 쉬운 정보 안내 체계 구축을 목표로 한다. 신형 노선도는 색각이상자도 구분 가능한 색상체계, 신호등 방식의 환승라인, 역번호 표시, 미니맵 최적화 등을 통해 정보 전달력을 획기적으로 높였다. 기존에는 지자체 경계, 한강, 분기점 정보가 생략돼 혼란을 줬지만, 이번엔 서울의 지리정보까지 정교하게 반영했다. 관련자는 "신형 노선도는 '약자동행'이라는 서울시 디자인 철학을 실현한 상징"이라며 "앞으로 지하철을 넘어 서울 전역의 공공디자인 개선으로 확장할 것"이라고 밝혔다.

관계적 지리학에서 공간과 사물의 관계성 그리고 그 이면에 대한 부분을 살펴보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러한 의미에서 현재의 공간과 사물을 배치하는 디자인은 우리에게 굉장한 영향을 준다.

배치는 "광고나 편집, 인쇄 등에서 문자, 그림, 기호, 사진 등을 시각적 효과와 사용 목적을 고려하여 제한된 공간 안에 효과적으로 구성하고 배열하는 일, 또는 그 기술"이라고 정의한다. 일정한 목적을 위하여 사물을 공간에 구성하는 것인 디자인은 그 자체가 권력 행위인 셈이다. 미셸 푸코는 권력은 소유되기보다는 행사되는 것이고, 점유에 의해서가 아니라 사람들을 배치하고 조작하는 기술과 기능에 의해 효과가 발생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개선된’ 서울 지하철 노선도를 통해 무엇을 확인하고 살펴야할까? 가시성의 향상? 이용자들의 편의성 제고? 색약자, 외국인의 지리정보 접근성 강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이면의 세계를 읽어보고 관계를 고민해야한다. 새로운 노선도는 지하철 노선도 일뿐만 아니라 또 하나의 세계를 담은 데이터이자 지도이다. 지하철로 연결된 세계의 중심은 ‘서울’이고 그 속에서 중심(상세,크게)과 주변(생략,작게)을 보여주고 있다.

위상학적인 접근은 연결하여 관계성을 표현하고 있지만 자연스레 관계성에서 권력이 설정한 내용을 보여주기 때문에 관계적 지리학적인 관점에서 이러한 점을 살펴보고 재구조화 등의 노력을 해야한다. 관계성에 초점이 맞춰지는 현재의 학계 분위기에서 결국 연구자들은 텍스트를 포함한 다양한 자료와 매체에 대해 ‘읽기’를 충실히 해야한다는 것을 우선적으로 고려해야한다.